

国家技術資格法制定에 즈음하여

宋
旼
求

Frank Lloyd Wright는 建築을 詩라고 말하였다.

Mies van der Rohe도 建築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쓸모 있는 建築, 아름다운 建築, 그리고 詩情이 우리 나는 建築이 그것이라고 하였다.

創作態度에서 両極端을 이루었던 이 두 巨匠의 생각도 究極에 가서는 같거니와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Gae the도 建築은 靜寂속에서 凝結된 音樂 고 하지 않았든가

그런데 最近 国家技術資格法에서 建築家の 定義가 말썽이 되었다.

建築家는 技術者라는 解釈을 建築하는 사람 자신이 내렸다는 데에서 파문은 더 일고 일었다.

좁은 一面만을 보고 全体인 양 장님과 코끼리의 錯覺을 하는 그 無知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거니와立法에 관여하는 建築家 자신이 자기의 偏狹한 생각을 法律에까지 아무 考察도 없이反映시킨다면 우리 文化面에 서의 앞날은 많은 毒素를 품게 되지 않을 수 없다.

建築家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 이 建築의 芸術性이 무엇 보다도 앞선다는 것이 아니였든가.

그것은 人間은 肉體的인 것 보다는 精神的인 것을 더욱 더 소중히 생각할 수 밖에는 없고 또 생각하기 때문이며 機能主義가 이루어 질때까지의 思想의 背景을 正確하게理解하고 機能主義 이후의 建築의 흐름을 살린다면 더욱 더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原来 宗教上에서는 神의 存在는 超時間의 超空間의 絶對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根本의 인 생각이다.

그 時間과 空間을 Kant는 人間의 直觀의 한 形式으로서 人間에 歸屬시키고 말아 버렸다.

이러한 革命의 思想은 여러 方面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후에는 独逸觀念哲學에서理性神까지 부르짖게 된 결과가 되었고 現代까지 모든 思考의 立脚點을 理性에만 둑으로서 오히려 人間을 헤여 나올 수 없는 深淵에 빠져 버린 느낌마저 갖게 된 것이다.

하여간에 Kant는 모든 認識이 純粹理性에서 이루어짐으로서 普遍妥當性을 認定하였고 純粹理性의 完全無缺한 構成의 한 例가 幾何學이 그러하다 하였으며 또 科學 및 技術의 發達과 더불어 人間은 機械美에 눈 뜨게 됨과 동시에 Einstein의 相對性原理에서 時間과 空間은 서로가 서로를 規定하는 函數關係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혀 내자 이 모든 것이 複合되어 특히 繪畫에서 Cubism이誕生하였고 이에 뒤이어 建築에서는 Cubism의 影響을 받음과 동시에 「芸術을 위한 芸術」에 反撓하여 機能主義建築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이며 創作手法

또한 Cubism과 같이 1段階에서는 機能과 構造의 철저한 分析 2段階는 定해진 構成原理—piloti 또는 空間의 相互貫入等一에 따라서 再配列綜合된 것이었다.

그럼으로 모든 경우 建築이 客觀的判斷 밑에서 이루어 지는 単純한 技術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라 고 斷定되어 歷史에 登場한 事実은 없었던 것 이 아닌가.

「機能이 形態를 支配한다」든가 「住宅은 生活의 容器이다」라든가 建築을 機械觀的으로 解釈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建築을 皮相의 으로 理解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아무도 疑心하지 않는다.

Bruno Zevi는 말하기를 그러한 일들을 結局에는 「芸術과 技術」이라는 데에 歸着시키고자 한 소위 機能主義者들의 努力이라고 풀이 하였다.

또 Zevi는 建築을 어떻게 理解하는가에 대하여 3個의 簡鑄로서 그 解釈을 要約하였는데 그것은 内容의 解釈 精神生理學의 解釈 形式主義의 解釈이며 紙面關係上 技術의 解釈에 관해서만 간단히 Zevi의 생각 및 나의 所見을 달고자 한다.

Zevi는 内容의 簡鑄 속에서 技術의 解釈을 내리기를 建築을 单的으로 構造上의 技術問題로 帰結시켜서 主張하기를 形態가 技術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形態는 항상 時代에 뒤진 技術을 反復하고 있을 때였다고 指摘하고 空間의 解釈만이 建築을 참되게 理解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면 새로운 技術에는 새로운 構造的 感覺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作家들의 判断은 正當하다고 Zevi는 생각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人間은 造形의 인데 대하여 먼저 관심을 나타낸다는 것 즉 第一義의 視覺에 呼應한다는 것 그리고 視覺은 主觀的이며 客觀性에 의지 하는 技術은 空間構成이 可能할 수 있는 内在的要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만이 建築의 全部를 대신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所見이다.

물론 技術의 發達로 表現의 可能性은 한없이 拡大된 것은 事實이다. 그렇다고 하여 建築行為는 技術行為라고 論理的飛躍이 容納될 수 있겠는가.

기술이라는 것은 有用性的 価値를 追求하는 것이고 芸術은 美를 価値 content으로 하여 理念의 啓示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確實히 区別하자는 것이며 技術에 의하여 美의 人工的生產이 可能하다는 것은 否認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것으로서 理念의 啓示를 超越하는 그 무엇을 技術에서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한편 分明히 하여 들것은 美의 인 것과 芸術의 인 것은 嚴密히 区別하여야 된다.

그것은 芸術은 精神的 社會的機能을 가지고 있고 知識과 意志와도 結付되는 것이며 또 芸術家의 人間으로서의 苦惱와 欲喜를 그의 創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共感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単純히 美의 寍象이 우리들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契機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芸術과는 환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芸術이라는 것은 「創造的 表現形成」이며 芸術의 創造에 있어서 직접呈示된 感覺의이고 個體의인 것을 통해서 깊고 넓은 存在의 根源이라든가 人生의 뜻과 같은 超感性的普遍의인 것 이 形態로서 啓示되는 것, 또 그와 동시에 芸術家가 創作에 傾注한 피와 땀이 어린 그의 人格性이 芸術作品 全般에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 그것이 芸術이기 때문이다.

참된 建築이 芸術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 모든 與件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詩情이 우러러 나는 그러한 作品을 대하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作家의 마음과 共鳴하여 秉惡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너와 나의 世界라든가 人生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答을 기쁨으로서 또는 즐픔으로써 서로가 속삭이기 때문에 그것을 芸術이라고 하는 것이다.

芸術을 分類함에 있어서도 그렇다.

作家의 強한 個性에 따라 芸術의 現象이 多樣함에도 불구하고 作品의 客觀的 構造에 따라서 芸術을 大別하기를 哲學的 形而上學的傾向과 科學的 經驗的傾向의 立場에서 分類하나 그 어느 경우도 建築은 造形芸術 機械的芸術 空間芸術 目的芸術 非事物의芸術, 非模倣의芸術 등등 여러 가지의 名稱에 의하여 芸術이라는 簡鑄에 屬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技術이라고 規定지운 일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또 現在 우리나라의 建築界의 質의인 落後를 理由로 하여 芸術보다 技術을 優先한다는 것도 「빈대가 미워 草家三間을 불태운다」는 格言대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人間은 삶에 대하여 그 나름대로 意義를 갖고자하고 삶을 営為하는 環境 자체까지도 意義를 얻고자 또는 意義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人間의인 慾望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建築은 分析된 모든 것을 建築家의 힘으로 芸術的 社會的 經濟的 技術의 으로 綜合되어 創造에로 이루어지는 것이 建築이다.

물론 分析行為의 大부분이 技術을 要하는 것이며 綜合하는 그 自體에도 技術의一面은 있다. 그렇다 하여 技術과 芸術이 混同될 수야 있겠는가.

끝으로 莫重한 任務를 지닌 우리들 建築하는 사

람들도 이 機会에 많은 反省과 努力이 있기를 빌며
参考로 美學学者 Kainz의 芸術의 種類의 分類書
를 掲載한다.

以上과 같은 観點에서 볼때 建築家の 定義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 答은 自明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人間을 위하여 創造한다.

그때 目的이 앞서느냐 表現이 앞서느냐에 대하

여는 建築家에게 맡긴다.

우리는 創造에 앞서 仮想된 対象에 관계되는 모
든 面을 分析한다.

그 分析의 대부분 專門技術을 必要로 하나 分析
의 目的是 創造에 있다.

空間創造는 第一義의으로 視覺에 呼訴한다. 그
것은 精神이 肉體에 優位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그것은 芸術의인 것을 究極의으로 追求한다.

| 空 間 芸 術 | | 時 間 芸 術 | 時空間的芸術 | |
|------------------------------|------------|---|--------------------|--------|
| 三 次 元 的 | 二 次 元 的 | | | |
| 調 刻 記念碑의 芸術 建 築 工 芸 | 繪 画 裝 飾 | 叙事詩 文 芸 抒情詩 曲曲 | Pantomime (演 劇) | 事物的芸術 |
| | | 標題樂, 歌唱, opera 音 樂, Ballet 絕對音樂 | 舞 踊 | 非事物的芸術 |
| | | 造 形 芸 術 狹義의 Muse 的 芸 術 廣義의 Muse 的 芸術 | 運動 芸術 | |